

성서 번역에서 컴퓨터 사용하기

-번역에 IT 자료를 심분 활용하기

로버트 P. 베징거

1. 서론

지난 20년 동안 번역자들과 컴퓨터 담당 직원들은 컴퓨터 공부를 많이 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과 출판되어 나온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문서작성 프로그램 덕분에 원고를 준비하고 출판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여러 본문처리 프로그램 때문에 수동 작업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번역 본문을 분석하고 대조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성서번역 기획진도, 신약성경의 반 크기로 매일 아침 신문을 출판하는 기술을 이용한다.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처럼 진보되었다. 물론 번역자와 컴퓨터 작동자와 편집인이 힘을 합쳐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 이들 인적 자원에만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담당 직원들은 새 기술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기획진이 컴퓨터가 얼마나 유용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고 알맞게 사용할 때 비로소 그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덕분에 출판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기도 하고 또 몇없는 번역이 나올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요약하자면, 연필과 종이를 사용하던 시대에 신진 작가들이 들어왔던 고전적이고 뛰어난 조연이 지금 사이버 시대의 번역진에게도 매우 타당하다고 하겠다.

“성의 없이 쓴 글은 읽는 기쁨을 줄인다.”²⁾

1)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즈(Singapore Straits Times) 조간신문은(광고면을 제외하고) 약 30%를 차지하는 도표와 사진을 포함하여 50쪽의 전지에 인쇄된 평균 1.5 메가바이트의 본문에 해당한다. 이 정도의 자료와 사진은 (신약성서의 절반인) 복음성경 그림색인판(the Good News Color Reference Bible)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분량에 해당한다.

2)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

2. 성서 자료에 대한 접근 향상

성서언어 지식은 번역진의 소중한 재산이다. 물론 컴퓨터 기술로 이 언어들 을 개인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 로 정보를 쉽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자료들을 통하여 성서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 베이스에서 원하는 단어를 찾기

최근 몇 해 동안 컴퓨터 체제는 세계의 주요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표준문자로 기호화하는 유니코드(Unicode)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소프트 웨어로 성서본문을 영어나 한국어로 찾듯이 아시아 각국의 언어로도 찾을 수 있다. 도표 1에서 그리스어 밥티조(βαπτισμα)가 성서에서 등장하는 64군데 중 몇 군데를 찾아볼 수 있다.

-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하기

성서 원어는 한 단어의 의미를 바꿀 때 밑말에 대개 형태소를 붙인다. 히브 리어와 그리스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성서본문의 문법을 혼자 힘으로 분석하는 법을 배우느라 고심하는 반면, 성서학자들은 성서 전체를 분석해왔다.³⁾ 컴퓨터 의 마우스를 한 번 클릭하는 것으로 성서본문이 담긴 전자본문 베이스를 문법 분석 정보에 연결할 수 있고, 성서본문의 해석과 번역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제 공한다. 도표 1이 보여주는 그리스어 밥티조(βαπτισμα)의 다양한 형태는 파라텍 스트(Paratext)라고 하는 번역자용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다.⁴⁾

도표 1: 그리스어 밥티조(βαπτισμα)와 연관된 자료

- 사전 및 기타 참고자료에 대조-색인을 만들기

3) 그램코드와 베이커(Gramcord and Baker)사는 가장 대중적인 문법분석 프로그램 을 출판했다. 이 전자 정보서비스는 수많은 전자 성서연구 제품에 들어있다.

4) 파라텍스트는 본디 르니에 뒤 블로아(Renier du Blois)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더 발전시켜 성서번역에 사용하도록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여러 창이 있어서 번역자가 화면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번역문을 모델 번역과 비교하며 편집할 수 있다. 정보가 더 필요하면 이 제품의 웹사이트인 <http://www.ubs-translations.org>를 보라.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는 열두 권도 넘는 성서 주석과 성서 참고 도서가, 찾고 있는 성서구절에 펼쳐진 채 번역자의 책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번역자는 이들 자료를 참고하면서 번역 초고를 공책에 옮겨 적었다. 번역자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이런 작업 환경을 본따서 본문 베이스와 기타 정보를 함께 연결함으로써 번역자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리수(Lisu) 본문과 개정표준역(RSV)과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본문의 대조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라텍스트는 성서 번역자와 편집인이 흔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창을 동시에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일부 주석과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자 지침서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낱말이 나오는 모든 곳을 보기

한 낱말이 지닌 여러 뜻과 어조와 뉘앙스는 그 낱말이 쓰이는 각 문맥을 주의깊게 비교하고 연구해야 알아챌 수 있다. 예를 들어 도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어 밧티조(βαπτισμα)는 문맥에 따라 “씻다” 또는 “세례를 주다”는 뜻을 지닌다. 컴퓨터는 몇 초 이내에 전체 성서본문을 망라하여 이 낱말이 등장하는 구절을 보여 준다. 번역자는 이와 함께 모델 본문과 번역문을 대조하여, 그 낱말의 뜻이 번역문에 적합하게 또 정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다.

3. 모델 본문과 번역문의 비평적 분석

• 번역의 유사성 비교

동일한 본문을 다양하게 번역하고자 할 때 그림 지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수행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다른 번역본이 얼마나 서로 비슷한가를 측정하는 것인데, 두 번역이 사용한 낱말을 세 줄로 나눈다. 곧 첫 역본만이 갖고 있는 대표적 단어들, 두 번역에 공통으로 쓰인 단어들, 둘째 번역만이 갖고 있는 단어들을 세 줄로 나눈다. 아래의 그림 2는 한 구절을 가지고 개정표준역(RSV)과 복음성경(GNT)을 비교한 예이다. 이 그림으로 서로 얼마나 비슷한가

를 잘 알 수 있다. 유사성이나 상이성을 다음 공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RSV	Let all men know your forbearance.		at hand.
공통어		The Lord is	
GNT	Show a gentle attitude towards everyone.		coming soon.

$$\text{유사성} = \frac{2x(\text{공통어의 수})}{(\text{두 역본의 전체 낱말 수})} = \frac{2x3}{22} = 0.273$$

$$\text{상이성} = \frac{(\text{첫 역본에만 있는 낱말 수})+(\text{둘째 역본에만 있는 낱말 수})}{(\text{두 역본의 전체 단어 수})} + \frac{8+8}{22} = 0.727$$

그림 2. 개정표준역(RSV)과 복음성경(GNT)의 빌립보서 4:5 번역 비교

컴퓨터를 사용하면 전체 성서를 단 몇 시간 안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덩어리구획기술(Cluster Mapping Techniques)을 사용해서 구획 도면을 만들 수 있고, 도표 2와 같이 일람표로 정리할 수도 있다.

그림 3: 영어 번역 간의 유사성

도표 2: 영어 번역 간의 상이성

이 분석은 각 번역의 역사와 기원과 번역방식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내용을 따른 번역일 경우에는 도면에 고루 흩어져 있을 것이고, 형식을 따른 번역이라면 대본 주변에 무리지어 나타날 것이다. 이 분석은 또한 유명한 성서 구절이 나머지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번역되었는지 살피는 데에도 유용하다.

• 의미론을 따라 덩어리로 배치하기

번역이란 적합한 낱말을 선택하여 어떤 언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윗 왕이 히브리어로 쓴 시편의 메시지를 여덟 살짜리 한국 소녀에게 잘 알려주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과거에 학자들은 어떤 문법 구조로 옮겨야 하고, 어떤 말이 독자에게 적절한가를 추측하거나 규정하면서 번역작업을 했다. 그러나 의학계의 최근 연구는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

하는 말을 학자들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⁵⁾ 교회에서 성경을 봉독할 때 젊은이들이 얼마나 알아듣는가하고 나도 개인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예배용 번역본이 우리 생각처럼 그리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지금 쓰고 있는 언어의 구체적인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독자들이 사용하는 말과 글을 분석할 수 있다. 이 자료와 성서 본문을 대조하면 번역하기 어려운 성서 본문을 쉽게 옮길 수 있다. 사전에 나오는 각 낱말의 뜻 영역을 밝혀내기 위해서 개발된 표준 카탈로그 체계를 사용하면 이 작업이 훨씬 쉬워진다.

앞서 말한 자료를 서로 비교하면 번역을 기획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 언어의 낱말을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옮기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영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아가페나 필리아에 담겨있는 그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밖에도 성서의 의미 영역 내에서 낱말 선택의 수는 언어에 따라 매우 다를 것이다. 신디(Sindhi)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12종류의 귀걸이 중에서 어느 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쓰였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다. 캐나다 북부의 이누잇(Inuit)족은 15종류의 눈 가운데서 어느 눈이 용서받은 죄를 나타내는 색깔인지 알고 싶어할 것이다. 짧게 말해서, 원문과 번역어의 문법과 낱말이 상당히 다를 때 우리는 번역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이 방법은 어떻게 번역해야 특정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까를 결정하는 일에 유용하다. 어떤 번역이든 독자가 사용하는 말과 문법과 말씨를 가장 잘 흉내 내어야만 복음을 가장 수월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독해력과 이해력을 점검하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뜻 중심의 번역을 내놓는 일이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목적이다. 이 목적이 중요한데도 번역진은 사실 앞으로 읽을 독자와 함께 이런 특성을 대부분 상의하지 않는다. 출판 전에 잘 시험해보지 않으면, 새로운 번역은 출판사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

독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영어권에는 여럿 있는데, 다른 언어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영어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독해력 시험은 프라이(Fry) 방식,⁶⁾ 플라이쉬먼(Fleishmen) 방식,⁷⁾ SMOG 방식⁸⁾이다. 여기서 기본 원

5) 미시건대학 건강서비스 환자교육자료(University of Michigan Health Services Patient Education Repository)가 1992년 성인 문자해독 조사(Adult Literacy Survey)를 통하여 밝힌 내용은 미국 성인의 약 절반이 중학교 1학년의 독해 수준 또는 그 이하라는 것이다. 환자교육자료에 제출된 대부분의 글은 중학교 1학년 독해 수준으로 다시 씌어져야 했다. URL: <http://www.med.umich.edu/pteducation/read.html>

칙은 긴 문장과 긴 단어는 구절을 복잡하게 하므로, 그만큼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단한 펄(Perl) 프로그램으로 성서 구절의 독해력을 빨리 측정할 수도 있다. 읽기 어려운 구절을 잡아낼 때 이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다.

그림 4: 프라이(E. Fry)의 독해력 평가표

시험을 보아야만 독해력을 재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 독해력 시험은 이해력을 파악할 때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이런 시험은 성서에서 한 구절의 핵심 단어를 공백으로 남겨두고 독자가 채워넣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시험은 만들기 쉽고, 또 독자가 어느 번역을 더 잘 읽는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4.출판을 위한 성서 원고 준비

번역기획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많이 들고 또 힘든 작업은 진행중인 번역문을 정확하게 반영한 원고를 내는 일이다. 원고는 번역 기획의 핵심 자료이다. 또 여러 판으로 다양하게 출판하는 데에도 사용한다. 보통 번역 원고는 교정인 한 사람이 석 달을 읽는데, 이 기간 동안 원고가 담고 있는 모든 측면을 다 기억할 수는 없다. 다음은 번역원고 교정용 프로그램을 설명한 것이다.

6) 프라이 독해력 결정법(Fry Readability Method)은 100개 단어 정도의 문단에 들어있는 평균 문장 수와 음절수를 결정한다. 읽기 수준은 프라이 독해력 평가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프라이(E. Fry)가 1978년에 출판하였다. "Fry's readability graph: clarifications, validity and extension to level 17," *Journal of Reading*, vol. 21.

7) 플라이쉬먼-킨케이드 공식(Fleschmen-Kincaid Formula)은 미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정부 표준 시험이다. 등급 수준은 문장 길이(문장당 평균 어휘 수)인 L과 어휘당 음절 수인 N을 결합함으로써 산출한다. 등급 수준은 $(L \times 0.39) + (N \times 11.8) - 15.59$ 와 같다. URL: <http://www.nist.gov/itl/div894/ovrt/people/sressler/Persp/Views.html>

8) SMOG(Simplified Measure of Gobbledygook, 딱딱한 표현을 간단히 측정하기) 시험 역시 씌어진 자료의 독해력을 결정짓는 빠르고 일관성있고 사용하기 쉬운 도구이다. 그러나 이것은 6학년 독해 수준 이하를 위해 씌어진 자료는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고 평가받는다. 이 시험은 글의 앞과 중간과 끝에서 각 10개씩 문장(총 30 문장)을 모아 실행한다. 이 예에서 N(셋 또는 그 이상의 음절이 든 어휘 수)을 결정한다. 등급 수준은 3에 N의 제곱근을 보탠 것이다. H. McLaughlin, "SMOG grading: A new readability formula," *Journal of Reading* 22.8(1969): 639-46에 나와 있다.

● 완성도와 일관성

성서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게 22:18-19의 말씀을 원고 편집인들은 잘 알고 있다. 정경의 책 배열 순서에 다양한 전통이 있지만 그 순서를 자동적으로 장절 순서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여럿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빠진 절이나 비어있는 절, 곧 본문에 본디 없는 절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프로그램으로 순서가 다른 것이나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과 같이 특이한 부분과 비교할 수 있고, 불일치하는 것도 찾아낼 수 있다.

성서의 각 장르에 따라 원문과 번역문의 길이에겐 일반적인 비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번역문을 원문과 비교하고 어느 절이 예상 낱말 수보다 훨씬 많거나 적은 낱말을 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완전하게 옮기지 않은 절, 간결하게 옮기기 어려운 구절 그리고 자르고 붙이는 과정에서 생긴 문장 조각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며, 성경을 효율적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번역 언어의 특징을 찾아내는 데에도 유용하다.

● 제목과 소제목 달기, 각주와 해설

백년 전만 해도 대부분 성서는 소제목이나 해설이 붙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본문이 뜻에 따라 단위로 구분해 놓으면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역본에 단락 구분과 소제목을 자동적으로 삽입할 수 있고, 파라텍스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델 본문과 그 작업결과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번역자는 그 외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과 소제목을 따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독자들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완성도를 점검하기 위해 모델 본문의 제목과도 비교할 수 있다.

● 문단 구분, 들여쓰기, 행 구분

파라텍스트와 함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문단 구분, 들여쓰기, 행 구분을 모델 본문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번역자는 임시로 최종 작품을 만들어 문단 구분, 들여쓰기, 행 구분이 정확한지 재차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들여쓰기를 해야 하는 시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다.

● 구두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번역문에 나타난 인용부호의 위치와 부호의 짝 등이 모델 본문과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알려진 본문 베이스와 본문을

대조하여, 성서를 드라마처럼 만든 듣기용 성경 프로그램을 작동할 수도 있고, 또 성서 영화의 비디오 자막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포맷용 설명 표식을 넣을 수도 있다.

● 철자법, 정서법, 하이픈 부호 넣기

철자법은 그 어떤 출판물에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성서 번역 기획에서는 아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철자를 인쇄해야 한다. 특히 성서 전체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바빌론(Babylon) 같은 단어가 그렇다. 이런 단어는 여러 말로 번역되면서도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틀린 철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를 다루는 새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을 쓴다. 곧 비정상적인 문자가 계속 나올 경우를 지적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는 말이나, 알파벳 하나가 달라서 또는 철자의 위치가 뒤바뀌어서 달라진 말을 찾아내고, 밑말을 보여주기 위해 앞뒤에 붙어있는 접사를 없애기도 한다.

성서 번역 기획 하나를 끝마치려면 여러 해가 걸리기 때문에 성서번역이 끝나기 전에 정서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사전을 보거나 규정을 따르면 자동적으로 원고를 최근 말로 바꿀 수 있다. 또한 컴퓨터는 정서법이 어떻게 바뀔지 분석해 내고, 그 변화에 영향받을 만한 단어를 모조리 열거하기도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수많은 소수인종이 살고 있다. 국경 양쪽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말하면서도 각국의 정치 체제 때문에 서로 다른 문자를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라오스, 타이, 미얀마의 카무트(Kamut)인은 같은 말을 하지만 쓸 때는 네 가지 서로 다른 문자를 쓴다. 이런 경우에 사전 또는 규정을 따라 같은 원고를 두 정서법으로 표기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국경 양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성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자동 하이픈 부호는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지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하이픈 부호가 붙어 있는 단어를 다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만드는 하이픈 부호가 그 위치에 제대로 붙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현재 개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드는 하이픈 부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느 언어에나 필요하다. 다음 사항은 이 모두를 종합한 것이다.

● 하이픈 부호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사전을 자동 하이픈 부호 규정과 예외에 이용.

● 하이픈 부호가 완벽하게 붙어있는 긴 낱말 목록 이용(목록에 없는 낱말은 하이픈 부호가 없다)

- 음절 구분에 따른 하이픈 부호 규정
- 형태소/접사의 구분에 따른 하이픈 부호 규정
- 예외적인 낱말 처리

5. 성서 탐색 장치와 색인의 개선

독자들이 성서를 이해하고 성서에서 최대한 많이 배우도록 돕고자 헌신하는 일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독자들이 성서에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포함된다. 원래 성서 탐색 장치는 똑같은 표현을 찾아내는데 쓰였다. 그런데 영어로 “사랑”(love)이라는 말을 찾으면 “사랑스러운”(loving)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단순한 사전식 탐색은 성서에 나오는 낱말을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므로 성서를 잘 모르는 요즘 세대에게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서 출판사들은 성서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서와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탐색 장치를 개발해 왔다. 다음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열거한 것이다.

• 낱말 표면 형태에서 사전적 밑말까지 분석

이 기술은 낱말을 성서에 나오는 형태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낱말 앞뒤에 붙은 접사 없이 표기되어 있는 사전의 표준 형태까지 다 정리하여 보여준다. 사용자가 영어로 “사랑”을 치면 컴퓨터는 “사랑하다,” “사랑하는,” “사랑받는,” “사랑했다,” “사랑스러운”과 같이 “사랑”에서 나온 모든 말의 위치를 알려준다. 이것을 사용하면 공통의 밑말이 들어있는 모든 단어를 일일이 찾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다.

• 동의어 사전을 이용한 사전적 밑말의 의미론적 배치

이 기술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을 의미론의 영역에서 모두 열거한다. 전에는 개정표준역(RSV)에서 영어 “애정”(affection)을 찾으면 불과 일곱 군데를 찾았다. 오늘날 이 말을 찾으면 “사랑”(love)과 “자애”(charity) 등 수 백 개의 참고 단어를 제시한다.

• 주제별 배치

이 기술은 성서의 주요 주제와 개념을 서로 연결해주고 기타 정보를 제공한

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 특정 주제에 따른 결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 전에는 개정표준역에서 영어 이름 요한(John)을 찾을 때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요한 마가가 다 나왔다. 그러나 주제 중심의 탐색은 찾고있는 특정 인물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한다.

* 관련 주제를 찾아내기 - 전에는 개정표준역에서 영어 단어 “낙담”(despondency)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낱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울에 대해서 성서를 주제별로 탐색하면 이런 심리 상태를 언급하는 12개 이상의 구절을 찾을 수 있다.⁹⁾ 실제로 어떤 의학대학에서는 임상심리학 교수들이 열왕기상 19장을 우울 증상의 좋은 예로 연구하기도 했다.

이 모든 방식은 성서번역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고 만든 것이다. 이 기술은 성서번역에 사용된 각 낱말에 별도의 정보를 집어넣어야만 이용 가능한 기술이다. 이 기술이 산출한 가장 좋은 웹(Web)과 씨디(CD)는 바로 번역자들과 컴퓨터 전문가들이 서로 밀접하게 협력해서 만든 것이다. 곧 IT를 이용하여 언어적인 정보와 성서의 정보를 실제로 유용한 보고로 사용하려고 개발한 것이다.

6. 결론

컴퓨터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여 새로운 문을 연다. 그러나 대부분 번역 기획진은 이 기술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 듯하다. 기획팀이 번역자들을 컴퓨터를 이용하는 출판(Computer-Assisted Publishing, CAP) 전문가들과 협력하도록 격려하고 진작시킬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 명석한 프로그래머는 이런 언어학 프로그램을 수 분 또는 수 시간 만에 개발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기획팀은 몇날 며칠간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번역자가 훈련을 잘 받고 기술상 후원을 받으면 적은 시간에 오류를 줄이면서 새 번역을 완성할 수 있다. CAP 직원과 번역기획진이 힘을 조금 합하기만 해도 번역기획의 과정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9) 낙담은 성서에 기록된 매우 흔한 인간 조건인 것이다. 창 4:13-14; 21:15-16; 출 4:1, 10, 13; 6:9; 14:15; 민 11:15; 수 7:7-9; 왕상 19:4; 행 27:20.

요약

지난 20년간 컴퓨터는 성서 번역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 글에서는 번역자들이 성서를 새롭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유용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표 1: 그리스어 밥티조(**βαπτισμα**)와 연관된 자료

그림 1: 리수(Lisu) 본문과 개정표준역(RSV)과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본문 대조표

그림 2: 개정표준역(RSV)과 복음성경(GNT)의 빌립보서 4:5 번역 비교

그림 3: 영어 역본들의 유사성

도표 2: 영어 번역들의 상이성

그림 4: 프라이(E. Fry)의 독해력 평가표

(번역: 유연희)